

-(으)ㄴ/는데

배경, 대조, 말 꺼내기

구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연결 어미로, 한마디로 정의하기 가장 어려운 어미입니다. 상황을 먼저 깔아 두고 문장의 나머지가 자리 잡을 여지를 남깁니다.

■ 결합 방법

단어 종류	형태	예
동사, 현재	-는데	가다 → 가는데
형용사	-(으)ㄴ데	좋다 → 좋은데
과거, 모든 품사	-았/었는데	갔는데 / 좋았는데
이다	-인데	학생인데
ㄴ로 끝남	ㄴ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데
말끝 흐리기	-(으)ㄴ/는데요	좀 바쁘네요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: 관형형 체계. 동사는 -는데를 씁니다: 가는데, 먹는데. 형용사는 -(으)ㄴ데를 씁니다: 좋은데, 바쁜데. 과거는 품사와 관계없이 항상 -었는데를 씁니다: 갔는데, 좋았는데. ㄴ 어간은 ㄴ이 탈락합니다: 만드는데, 긴데.

핵심 기능은 본론에 앞서 상황을 깔아 주는 것입니다: 지금 밖인데 조금 늦을 것 같아요. 앞 절은 이유도 아니고 딱히 대조도 아닌, 배경입니다.

여기서 쓰임이 넓어집니다. 대조를 나타낼 수 있는데, 다음보다 부드럽습니다: -지만. 또 요청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많은 공손한 말머리에 쓰입니다: 저기, 길을 좀 묻고 싶은데요. 문장 끝에 걸어 두면 듣는 사람의 반응을 유도합니다.

■ 예문

- 1 지금 밖인데 조금 늦을 것 같아요.
- 2 저기, 길을 좀 묻고 싶은데요.
- 3 어제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.
- 4 이 식당은 비싼데 맛있어요.
- 5 지금 저녁을 만드는데 같이 드실래요?
- 6 시간 있으세요? — 지금은 좀 바쁘네요.

■ 비교

-지만
-지만은 대립을 분명히 말하고, -는데는 배경만 제시하고 대조는 듣는 사람이 알아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구어에서는 -는데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.

비싸지만 맛있어요. (비싸지만 맛있다) / 비싼데 맛있어요. (비싸긴 한데 맛있다)

-아서/어서
-아서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지만 -는데는 그렇지 않습니다. 앞 절이 단지 상황을 깔아 줄 때는 -는데를 쓰세요.

비가 와서 안 갔어요. (비가 와서) / 비가 오는데 갈까요? (비가 오는데 그래도 갈까요?)

-거든요
-거든요는 듣는 사람이 몰랐던 이유를 설명하고, -는데는 화제를 엮니다. 같은 대화에 자주 함께 나오지만 역할이 다릅니다.

지금 바쁘네요. (바쁘다고 말끝을 흐림) / 지금 바쁘거든요. (실은 바쁘거든요)

■ 주의

- ✗ 이 식당은 비싸는데 맛있어요.
- 이 식당은 비싼데 맛있어요.
비싸다는 형용사이므로 -(으)ㄴ데를 씁니다. -는데는 현재 시제 동사에 씁니다.
- ✗ 어제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.
- 어제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.
과거에는 형용사를 포함해 모두 -었는데를 씁니다: 좋았는데, 바빴는데.
- ✗ 지금 저녁을 만드는데요.
- 지금 저녁을 만드는데요.
ㄴ로 끝나는 어간은 -느와 -네요 앞에서처럼 -는데 앞에서도 ㄴ이 탈락합니다.